

내년 1월부터 상환능력별 대출 시행

〈DSR〉

가계부채관리 강화 추가 대책

DSR 2단계 규제 6개월 앞당겨

2금융권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확대

정부가 26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7월 시행한 지 3개월 만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했지만 '내 집 마련 막자'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크게 '엄격한 대출심사로 한도 조이기' '2금융권 규제 강화' '분할상환 확대'로 부채 질 높이기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대출받기 쉬운'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원래 내년 7월 시행하기로 했던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는 6개월 앞당겨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한 규제는 내년 7월로 앞당겨졌다.

1단계인 지금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 원리금 상환 부담을 주는 등 카드론에 대한 규



제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 규제 강화에 따라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 규제비율을 은행권(40%)보다 여전히 높은 50%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40%)을 포함해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업권별 규제비율은 보험회사 70%→50%, 상호금융 160%→110%, 카드 60%→50%, 캐피탈 90%→65%, 저축은행 90%→65% 등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고, 8월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억3000만원을 이용한 대출자가 내년 3월에 추가로 2000만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게 되므로 차주단위(개인별) DSR 제한이 적용된다. 이 대출자의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은행에서는 연간 원리금 합계 2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보험사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원리금 2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된다.

올해 6월 말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중은

73.8%로, 내년 1월부터는 분할 상환 목표가 내년엔 80%로 책정된다.

아울러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우수 금융회사에는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고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도 지속할 방침이다.

단 이번 추가대책에서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고 집담 대출 또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로 인정되면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추가대책을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2분기 10.3%)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8월 말 기준 2금융권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광주 29조8097억원·전남 28조1104억원 등 57조920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3조2633억원) 증가했다. 이는 서울(9.0%)과 대구(7.4%)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관원 11월부터 공공비축비 매입 검사

12월까지 광주·전남 687개 검사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공공비축 포대매 매입검사를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11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지원은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 광주·전남 687개 검사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 포대매 매입 검사'를 벌인다.

전남지원은 추운 겨울에 출하해야 하는 농업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검사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공비축비 매입 규모는 포대매 10만 3000t·산물벼 2만3000t 등 12만6000t(정국 9만 1000t)이다. 전국(48만6000t)의 25.9% 비중을 차지한다.

매입 가격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금액이 될 예

정이다.

수확 후 산물 형태로 바로 매입하는 산물벼 매입은 각 지역의 마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 시설(DSC) 45개소에서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된다.

포대매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달 1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검사한다.

포대매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별 매입 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2021년산 매벼에 한해 수분이 13.0~15.0%로 건조한 벼를 40kg와 800kg 단위의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올해는 농촌 인력난을 감안해 수매 때 인력 소요와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대형 포대매 매입 비율을 97.0%로, 전년(95.8%)보다 높일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오른쪽 두번째) 임직원들은 정부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26일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열고 대화용컵 쓰기, 계단 이용하기, 조명 끄기 일상화 등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국세청 광주 평동산단서

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6일 광주 평동산업단지에서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 등 지역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세부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대지 국세청장과 지역 자동차부품과 금형, 표면처리 분야 등 중소기업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대지 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도의 유예대상 확대 등 세무검증 완화와 조사 연기 신청·해명자료 온라인 제출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이밖에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중

소기업계의 의견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 및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통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신보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고 등급

지난해 지역 소상공인 1조원 보증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1조원 대출보증을 공급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광주신보는 2021년도 광주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 속에서 광주신보는 지역 소상공인에 1조원 보증을 공급했다. 올해 보증실적은 지난 25일 기준 4972억원이다. 또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등 3無 용자지원으로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성과관리 효율화로 출연금 250억원을 확보했고, 부패방지 ISO 국제인증 획득한 성과도 인정 받았다. 광주신보는 보증 상담 예약 때 고령자와

임신부를 우대하고, 시민소통 통로를 넓혀왔다.

경영전략과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기관장 평가에서는 지난해 A등급에서 한 단계 오른 S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광주시 산하 19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의 2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49.08 (+28.54)
↑ 코스닥	1011.75 (+17.45)
↑ 금리(국고채 3년)	1.947 (+0.028)
↓ 환율(USD)	1167.60 (-0.80)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